

# 전북, 장애인체전 메달 초과 획득

금 36·은 39·동 42 등 총 117개  
사이클 신익희, 우수지도자상 수상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도 기여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5개 종목 490명이 출전한 전북선수단은 금 36개, 은 39개, 동 42개 등 총 117개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79,251점으로 종합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목표보다 종합순위는 한계단 하락했지만, 메달은 초과 획득하며 메달순위 10위를 거두는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지난해 개최되지 못했던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는 철저한 방역 대책수립으로 어느 때보다 선수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 가운데 경북 일원에서 6일 간 열릴 경쟁을 펼쳤다.

전북선수단은 무사고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사이클 신익희 지도자가 대회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폐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대회에서 육상 트랙 임진홍 선수를 비롯해 사이클 김정민/최지운 2020 도쿄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했던 사이클 이도연과 육상 문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지도자상을 수상받은 신익희 사이클 지도자.

경, 사이클 김용기 선수가 3관왕을 올렸다.

그 밖에 한국신기록 1개를 수립한 사이클 석호진과 태권도 국가대표 이수빈, 육상필드 김정호, 댄스스포츠 송호천/정하운, 양궁 김경화, 휠체어펜싱 류은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대회일차 수영종목 서울소속 선수 한병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방역패 뉴얼에 따라 수영선수단 전원 PCR검사 시행(전원 음성) 및 수영장이 2일 간 폐쇄조치되면서 수영 4·5·6일차 전체경기 취소결정이 내려져 1·2·3일차 수영 경기결과까지만 적용해 종합순위를 진행했다.

이번대회에서 사이클, 육상필드 종목에서 총 4개의 한국신기록과 수영종목 최은지 선수가 대회신기록 2개를 수립했다. 사이클에서 대회 3회 연속 종합우승, 태권도 종합 2위, 펜싱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전북선수단 성적에 기여를 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차기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은 험난하다"며 "별써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인 젊은 꿈나무 선수에 대해 타시·도의 영입 설이 난무해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팀 및 선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고,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배치 확대, 훈련장비·용품지원, 신인선수 발굴·육성, 우수선수 관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의 지속적 체육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직장운동부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전북 보치아 선수들(사진 왼쪽)과 펜싱 선수들.



## 순창, 전북도민체전 소프트테니스 우승

코로나 19로 인해 분산 개최중인 전북도도민체전 소프트테니스(정구)종목에서 순창군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40년 전통의 소프트테니스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순창군 공설 운동장 실내소프트테니스구장에서 열린 도민체전 소프트테니스종목에서 오성룡단장(순창군소프트테니스협회장)이 이끈 순창군 선수단이 도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순창군 선수단은 현직 전문선수의 참가를 배제하고 순수 동호인, 은퇴 선수, 남·녀 혼성팀으로 구성해 우승하며 그 어느 대회보다 의미가 크다.

14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시·군부를 나누어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으며 순창팀은 예선에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을 차례로 만나 2:0으로 이겨 일찌감치 결승전에 올라왔으며 시부에서 올라온 익산시와 결승전

을 치며 2:0 대승을 거뒀다.

우승의 주역은 오 단장을 비롯한 한운미 코치, 이종태, 이태훈, 김미라, 황주연, 윤기천, 김정일, 전병상 선수 등이며, 대회참가를 위해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매일 저녁 퇴근후 손발을 맞추는 등 메달획득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해 순창군청 정구단의 원포인트 레슨이 우승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 단장은 "힘든 훈련여건에서도 항상 파이팅을 해준 선수단에 고마움과 함께 이번 우승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순창군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40년 전통의 순창군 소프트테니스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프로야구 운명의 1주일

### 우승·5강 다 갈린다

삼성·KT, 마지막까지 1위 다툼  
5강 마지막 두 자리 경쟁도 안갯속

꼭 엿새 남았다. 이번 주에는 길었던 열두에 마침표가 찍힌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1 신한은행 쏘 KBO 리그 정규시즌이 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종착역이 코앞이지만 아직 우승팀도 가늠아무에 나설 이들도 결정되지 않았다.

우승 레이스는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2파전으로 압축된 모양새다. 왕조를 재건하려는 삼성의 뒷심은 막판 우승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삼성은 22일과 23일 KT와의 맞대결을 모두 잡아내면서 단독 선두를 꿰찼다. 토종 선발인 원태인과 백정현의 호투는 팬들이 들어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삼성이 순위표 최정상에 등극한 것은 6월 2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제는 지킬 일만 남았다.

KT는 8월12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 6경기까지 앞서며 여유있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였지만 막판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삼성(75승9무57패)과 KT(74승8무57

패)의 격차는 0.5경기. KT가 삼성보다 2경기 많은 5경기를 남겼다.

KT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잔여경기를 모두 이기면 삼성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떨어진 페이스와 상대할 NC 다이노스(3경기),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이상 1승)가 총력전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두 팀과 3강 체제를 구축했던 3위 LG 트윈스(69승12무57패)는 패권 다툼에서 한 발 떨어진 분위기다. 지난 주말 두산전 2무패를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3무3패에 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4위 두산 베어스(67승8무64패), 5위 SSG 랜더스(64승14무62패), 공동 6위 NC 다이노스(65승8무65패)·키움 히어로즈(66승7무66패)는 두 장의 가늠아무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이다.

두산과 SSG가 다소 유리해보이지만 NC와 키움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산술적으로는 8위 롯데 자이언츠(64승7무68패)에도 기회가 남아있다. 5전 전승 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9월 이후 성적이 전체 3위(23승4무18패)에 해당하는 점을 떠올리면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뉴스

## 쇼트트랙 최민정, 부상으로 귀국

월드컵 1차 대회서 충돌로 인해  
무릎·발목 부상… 2차 출전 불투명

뒤늦은 분위기 속에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를 치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또 악재가 닥쳤다.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23·성남시청)이 월드컵 1차 대회를 치르던 도중 부상을 당해 2차 대회 출전이 불투명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최민정이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최민정이 25일 새벽 귀국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정의 귀국 이유는 부상이다.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충돌 여파로 부상을 당했다.

최민정은 지난 23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마지막 비위를 돌다가 대표팀 동료 김지유(경기안남)와 부딪혀 넘어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 달린 끝에 최종 6위에 자리했다. 이어 벌어진 여자 500m 준결승과 준결승을 무난히 소화한 최민정은 500m 결승에서 또 앞서 달리던 이탈리아의 마르타나 발체파나가 넘어지면서 휩쓸려 충돌했다. 최민정은 다시 일어

나 달렸고 동메달을 땀다.

그러나 최민정은 24일 벌어진 1000m 준결승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최민정 없이 3000m 계주를 치렀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최민정이 무릎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24일 경기를 모두 뛰지 않았다. 부상 정도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최민정이 몸 상태를 살펴기 위해 귀국하면서 쇼트트랙 대표팀은 최민정 없이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로 이동했다.

21~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월드컵 1차 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17일 출국한 대표팀은 28~31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2차 대회를 마친 뒤 귀국한다.

월드컵 2차 대회에 대체 선수를 파견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자 대표팀은 김지유, 이유민(연세대), 김아람(고양시청), 서휘민(고려대), 박지윤(한국체대) 등 5명으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엔트리에 없는 선수는 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대체 선수를 파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여자 대표팀은 5명으로 2차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스

축! 전주매일 창간

#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